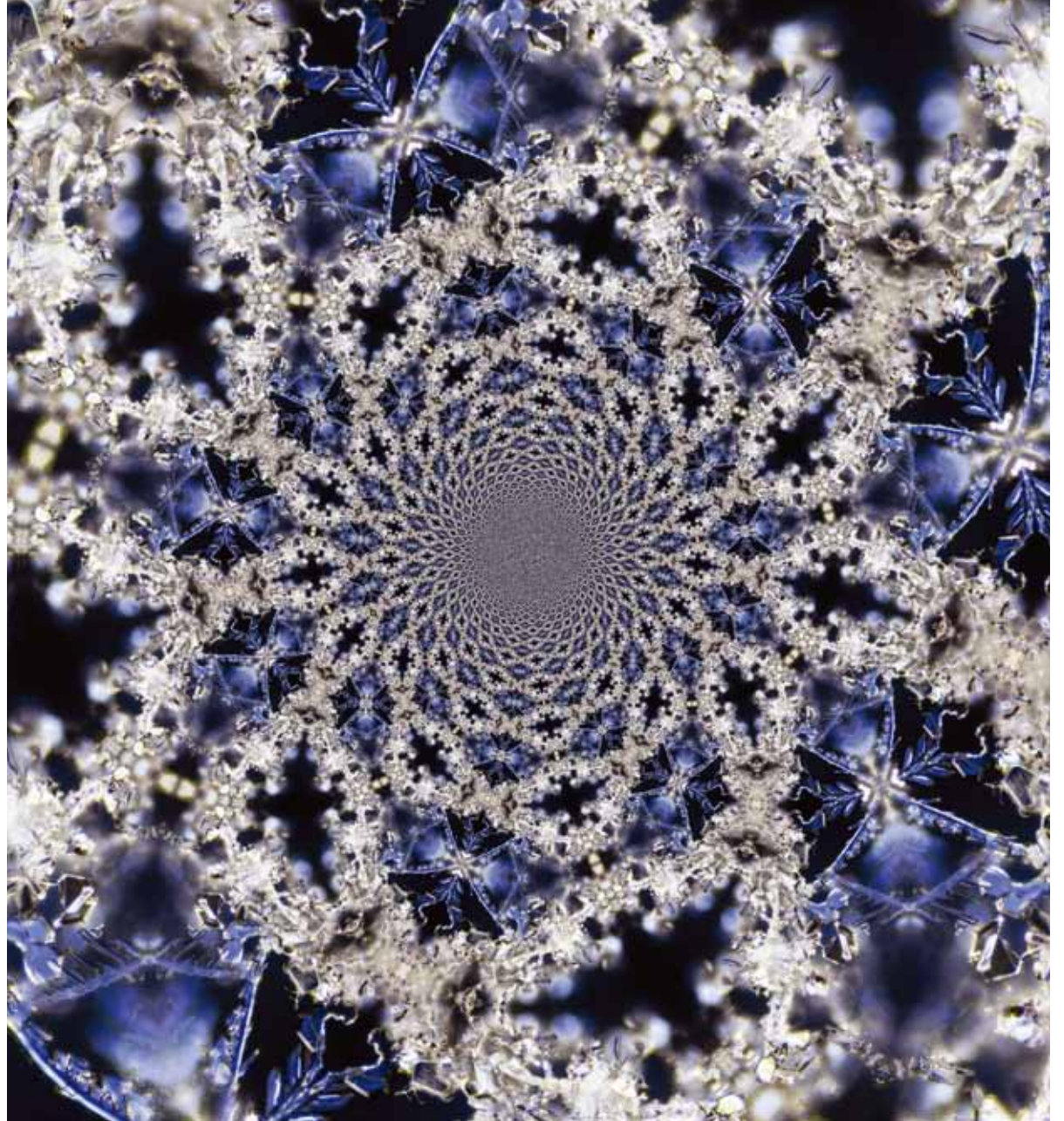




HYUNDAI MOTOR

2017 NOV. DEC

vol.338

COVER STORY

차가운 눈송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송이, 찬란한 햇살을
머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모터>와 더불어 이 계절의 매력을
만끽하는 한편 시나브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긴 여정과 같습니다.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누비며
몸도 생각도 조금씩 성장하고
무르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다시 떠난 곳
나를 나이게 하는 가장 처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차가운 바람 부는 이 계절
한 해 동안 힘겨운 길을 걸어오신 당신에게
따뜻한 집 안의 온기를 선사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내일의 꿈과 설렘을
함께 나누어보세요.



현대자동차 교양정보지
격월간 현대모터
비매품
발행일
2017년 11월 1일·통권 338호
신고번호 서초마00085
신고일자 2016년 8월 26일
발행인
이원희
편집인
박진호
기획·편집·디자인·사진
아이퍼블릭스
TEL. 02-3446-6362
인쇄인
이근우, 광명특수인쇄(주)
TEL. 031-948-9300
발행처
현대자동차(주) 홍보실 문화홍보팀
나형진 TEL 02-3464-2929
e-mail nhjok@hyundai.com
홈페이지 www.hyundai.com

SPECIAL [HOME]

- 06 TALK
유쾌한 제주 부부
가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다
- 12 FOOD
서울 골목을 거닐며
세계의 가정식을 만나다
- 16 ART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공존하는 집
설치미술가 서도호
- 20 THERAPY
집에서 즐기는
셀프 힐링 테라피
- 24 CULTURE
가족은 모순 덩어리,
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



FEATURE



- 30 TOUR BY CAR
경계의 땅 철원
그 청정한 자연과 생태의 신비 속으로
- 38 FAMILY NUMBER
꿈과 도전이 담긴 피규어, 또 다른 나의 가족
- 42 PETFAM
실내에서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바르게
겨울철 반려견 돌보기 A TO Z
- 46 FATHER'S KITCHEN
홈 파티 테이블에서
즐거운 이야기가 넘쳐흐르다
- 50 IN THE BAG
필요해 만들고 오래 두고 쓰다
금속공예가 심현석의 쓸모 있는 가방
- 54 DR. HM
-겨울철 눈 건강 관리법
-‘홀리데이 블루스’ 극복하기

HM INSIDE



- 58 ZOOM IN
중형 럭셔리 세단의 신기원
GENESIS G70
- 64 TO THE NEXT
너의 이름이 궁금해
- 66 NEWS
현대자동차 뉴스



제주비를 운영하고 있는 신성선(왼쪽), 김진경 부부

S - TALK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이승준, 김진경



제주비 건물 중 가장 먼저 지은 돌집은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간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잃고 마는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휴식이다. 삭막한 이 시대에 따뜻한 위로를 선사하는 ‘가정’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제주비(jejuVie)’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특별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진경, 신성선 부부에게 집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유쾌한 제주 부부 가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다



01
자투리 타일도 부부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

02
바닥의 꽃 타일 하나까지 부부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무슨 우연일까. 비 오는 제주를 좋아해 이름을 지었다는 부부의 민박, 제주비를 찾은 날. 마침 내린 비로 제주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굴나무가 가득한 곳, 부부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위미리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굴나무가 인상적인 제주비는 촬영 감독이던 남편이 직접 집을 짓고 공간 디자인이었던 아내가 손수 꾸며 탄생한 공간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저녁 식사 한 끼를 함께하기도 어렵던 부부는 이제 제주비에서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늘어났다는 이들.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한적한 이곳 마을, 위미리에 자리 잡았을까? 그리고 제주 이주 후 이 가족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을까. 자리를 마주하고 앉아 쌓인 질문들을 건네본다.

Q. 순항하고 있던 본업을 정리하고 제주에 정착하시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A. (김진경) 서울에서는 일에 치여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일의 특성상 출장도 잦았고 아내와 저 둘 다 본격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작업에 들어가면 서너 달은 정신없이 보내곤 했으니까요. 일이 꾸준히 있긴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구조 같아요. 저희가 종사한 직업은 젊은 감각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꾸준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고민 끝에 제주에 있었죠. 우연이라기보다는 운명이었어요. 서울 생활을 할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국내 곳곳을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특히 제주에 자주 왔어요. 무엇보다 제주에 와서 먼저 정착한 지인들을 보면 개인 단위로 행동하던 서울과 달리 무엇을 하든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생활하

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제주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았다고나 할까요.

Q. 제주에 오신 후로 일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A. (신성선)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을 받는 건 서울과 제주 모두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라면 서울과 제주 생활에 대한 대답은 많이 다르죠.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이어리예요. 서울에서는 매일 다이어리를 썼어요. 시간을 쪼개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잠시만 멍해도 다음 스케줄을 보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죠. 반면에 제주에서는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일 없이도 집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가거든요. 결국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는 점이지요. 두 식구뿐인 단란한 가정이지만 제주에 와서는 저희 가족이 더 완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Q. 저녁 한 끼도 함께하기 힘들던 서울 생활과 달리 제주에 와서는 모든 식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A. (김) 식사 준비는 담당 없이 함께 하는 편이에요. 저는 파스타나 양식 쪽에 자신이 있고 아내는 잡채 같은 한식을 맛있게 만들

어서 각자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그날의 요리사가 정해지는 거죠.(웃음) 아내와 함께 매일 위미항으로 산책을 가거나 해산물을 사러 가면서 친해진 어부분들께 선물도 자주 받아요. 무심한 듯 톡 내미는 꾸러미 속에 광어며 우럭이며 소라며 정말 다양한 해산물이 있거든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A. (신) 채소는 오일장에서 구입하는데 오이나 상추, 고추는 작년에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앞집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굴 농사를 하시는 데 한 쪽에서 비닐 하우스도 하시거든요. 그분들께서 매일 이것저것 챙겨 주셔서 금세 건강한 한 상이 뚝딱 차려지죠.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인심을 제주에 와서는 그야말로 후하게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웃 분들에 비해 가장 어린 편이고 딸, 아들 뿐이라 친자식처럼 챙겨주세요. 이제는 서로 많이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피로 얹힌 가족은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남편과 저 뿐이라고 느껴지던 가족의 개념이 대문 밖, 이웃과 마을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마을이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A. (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난 추석에는 당일에도 손님 방을 청소하느라 오전부터 바빴어요. 추석 음식은커녕 아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정말 한 상 푸짐하게 차려서 들고 오셨어요. 그렇게 한 상을 차려 오시면서도 젊은 양반들이라 차례 음식 안 좋아하면 어쩌나 하고 고민하셨대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감사해하니까 국이랑 밥도 가져다주시고 맛있게 먹어주니 더 기쁘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마음까지 풍요로운 명절이었어요. 가족이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가진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존재인 것 같아요.

Q. 제주비를 찾는 가족들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기분을 느끼길 원하시는지요.

A. (신) 제주에 내리는 비라는 뜻도 있지만 제주비(jeuVie)의 ‘비(Vie)’는 프랑스어로 ‘삶’을 뜻해요. 제주비의 뜻은 제주의 삶인 거죠.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잠깐을 머물더라도 이름처럼 제주의 삶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러듯이 제주비를 찾

으시는 가족분들도 아침 새소리에 깨서 마당에 나와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아침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도 하시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이곳을 찾으시는 가족분들이 제주비를 통해서 행복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신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Q. 일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비를 지으시면서 그 속에서 머물며 추억을 만들고 갈 손님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직접 지은 공간 안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는지요.

A. (김) 신혼 초에 아내에게 ‘십년 후에 당신에게 집을 지어 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정말로 그 약속을 하고 꼭 10년 후에 제주비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건축에 대해 무지하던 제가 집을 짓게 된 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아파트를 사 주겠다는 말보다 신혼 초부터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한 건 도심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우리만을 위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내와 한 약속과 계획을 어느 정도 이루고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A. (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이 많은 집을 찾잖아요. 저희가 제주비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본채, 별채, 돌집 모두에 방은 하나씩만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부터도 모든 공간이 단독적일 때보다는 주방과 거실, 다락이 모두 뚫려 있으니까 더 많은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어요. 대화도 더욱 많아졌고요. 제주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다는 저희의 생각 그 자체가 반영되었어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감사한 마음이 크죠.

Q. 집과 가정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정의가 궁금합니다.

A. (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묵어도 여행을 마치고 집 현관을 여는 순간 ‘역시 집이 최고야’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시설면에서는 호텔이 더 좋잖아요. 집은 호텔에서는 받을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에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는 가족과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한다는 생각에 불편함이나 고민이 단번에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느낌.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집 그리고 가정이에요.

A. (김) 저 역시 아내와 생각이 같아요. 집이라는 공간이든 가족이라는 존재든 모두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가정에서 받은 따뜻함으로 또다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중심이 바로 섰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편이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가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마당 한가득 바람을 따라 핑크물리의 물결이 일렁인다. 어느새 촉촉하게 내리던 비는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모습을 보인 햇빛이 제주비를 비춘다. 서로를 향한 무한한 애정이 넘치는 신성선, 김진경 부부가 산책을 나서기 위해 맞잡은 두 손에 시선이 멈춘다. 지나온 날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03
별채를 찾은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시원하게 뚫린 창을 통해 오래된 굴나무가 있는 마당을 바라볼 수 있다.
04
어둠이 내려앉은 제주비에는 은은한 모닥불과 함께 부부와 이웃들의 즐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글. 정린(푸드칼럼니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이철민



추운 날씨 탓에 마음까지 허전해질 때면 따뜻하고 포근한 이야기와 정성이 담긴 가정식이 그리워진다. 한가롭게 거닐며 서울에서 각 나라의 가정식, 힐링 푸드를 맛보기로 했다.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세계의 가정식을 소개한다.

서울 골목을 거닐며 세계의 가정식을 만나다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는 맛 서대문 한옥집의 김치찌개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도 김치찌개에 관한 추억이 있다. 고교시절의 추운 겨울날 등교 전에 먹었던 따뜻한 김치찌개의 기억인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날 위해 새벽잠을 설쳐가며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끓여주시곤 했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그것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어머니의 비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서대문에 위치한 한옥집에 가니 그 시절의 추억과 같은 맛과 조우할 수 있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 넣으면 특유의 진하면서도 달큰한 국물맛이 입안 가득 기분 좋게 퍼진다. 만들 때부터 툴림없이 정성을 쏟았을 목은지와 빼놓을 수 없는 콤비인 돼지고기는 큼지막하게 썰어 입에 넣는 순간 녹을 정도로 부드러다. 밥 한 공기를 더 청해볼까 고민 할 만큼 묘한 중독성이 있는 맛. 이런 김치찌개는 가장 흔하면서도 만나기 힘든 메뉴다. 이런 아이러니함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품는 이유일 것이다.



Kimchi jjigae



conscious

그 이름처럼 독특한 매력 꾸스꾸스의 꾸스꾸스

매서워진 날씨가 계속되니 갈비찜이나 감자탕 같은 푸짐하고 따뜻한 고기 요리가 간절해졌고,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지인이 이 음식점을 소개했다. 바로 서촌에 위치한 꾸스꾸스. 우리나라에선 흔치 않은 튀니지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가게 이름이기도 한 꾸스꾸스는 튀니지의 대표 음식인데, 음식 이름인 동시에 좁쌀 알갱이 같은 파스타의 일종이다. 칼바람이 유독 불던 날, 이곳에서 만난 꾸스꾸스는 양고기나 닭고기, 당근, 감자, 병아리콩을 토마토 소스와 향신료 등을 섞어 조리한 찜에 곁들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느껴졌다. 또 한입 맛보면

누구나 매력을 느낄 음식으로, 튀니지 사람들의 힐링 푸드라 불리기 충분했다. 특히 재미를 주는 것은 꾸스꾸스의 질감인데, 이것을 씹을 때면 한 알 한 알이 ‘톡톡’ 하고 마치 입속에서 불꽃놀이를 하듯 터지는 느낌이 이채롭다. 꾸스꾸스 본연의 맛을 즐기 위해 처음엔 그냥 먹다가 세 입 정도 먹은 뒤엔 촉촉한 삶은 달걀을 한입 베어 물고, 그 고소한 맛이 입안을 한번 코팅하게 한 다음 새롭게 즐겼다. 고기를 비롯한 각종 재료와 꾸스꾸스 그리고 삶은 달걀이 전하는 트리플 펀치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든든하고 보양을 한 듯한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

입안 가득 느껴지는 지중해의 여유
산토리니의 수블라키

움직임이 적어지는 계절엔 건강한 음식이 더욱 생각난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맛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음식 중 한 부류가 바로 그리스 음식 아닐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산토리니의 석양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수블라키다. 그래서 별다른 것 없어 보이지만 지중해의 신선함을 품고 있는 이 꼬치구이를 맛보러 이태원에 있는 산토리니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채

소와 함께 갈아서 숙성시킨 뒤에 구워 요구르트를 베이스로 만든 차지키 소스에 찍어 먹는 호방한 사이즈의 수블라키가 준비됐는데, 나는 그 두꺼운 고기를 최대한 오래 느끼기 위해 마치 초가 흘러내리듯 최대한 천천히 씹어 음미했다. 그 맛을 표현하자면 씹을 때마다 그리스의 태양에 겹겹이 그을린 푸근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드는 느낌이랄까. 지중해 음식 특유의 신선함과 여유로움이 전해져 오는 음식이다.



이국적인 듯 익숙한 손맛을 품은
티그레 세비체리아의 세비체

외가가 강원도인 나는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줄곧 동해바다를 찾았다. 그 시절의 생선회야 그다지 반갑지 않은 메뉴였지만 외할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회무침만큼은 새콤달콤한 맛에 즐겨 먹었고, 그때의 맛은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머나먼 이국에도 우리네 회무침과 비슷한 가정식이 예로부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바로 중남미의 가정식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인 세비체다. 세비체를 맛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페루 음식점을 찾았다. 이곳에서 처음 접한 세비체는 생선살을

얇게 떠 라임즙을 비롯한 다양한 향신료에 재워 차갑게 먹는 스타일로, 발끝부터 전해오는 새콤함과 먹을수록 당기는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생선회가 쪽쪽 나아가는 자유형이라면 세비체는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유유히 나아가는 배영과 같은 맛이라고나 할까. 생선회가 생선 본연의 맛에 집중하게 하는 반면, 세비체는 산미를 비롯한 특유의 느낌이 더해져, 오감을 자극하는 독특한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매우 이국적인 요리인 동시에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는 별미였다.



01
<투영> (2005-2011)

S - ART

글. 지근화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설치미술가 서도호

설치미술가 서도호는 '집'이라는 일상적인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에게 집이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자아가 성장하고 가정이 일체감을 느끼는 특별한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성북동을 비롯해 뉴욕, 베를린, LA 등 자신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투명한 천으로 재현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세계적 작가로 이름을 얻게 됐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공존하는 집

2013년 11월, 종로구 소격동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 집’을 보았다. 아니, ‘그의 집’을 보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관 개관을 기념해 첫 번째 프로젝트 작가로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설치미술가 서도호였다. 일찍이 그를 알았지만 주로 해외에서 전시회가 열린 탓에 사진으로만 작품을 만나야 했던 사람들은 반투명한 청색 천으로 지어진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을 보며 탄성을 내뿜었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집이 마치 액자소설처럼 구성되어 있다. 밖에서 보이는 집은 작가가 미국 유학 시절 처음 살았던 3층짜리 주택을 재현한 것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어린 시절 살았던 한옥집이 위에 매달려 있다. 외부에서 보면 유학 시절의 집이 어린 시절의 집을 감싸고 있어 과거로 시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



02
<Seoul Home/L.A. Home/
New York Home/Baltimore
Home/London Home/
Seattle Home> (1999)

03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2013)



04
<떨어진 별: 1/5 (Fallen Star: 1/5)>
(2008~2009)

05
<브리징홈(Bridging Home)>
(2010)



면에 내부에서 보면 성장기에서 청년기로 자아의 공간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상이한 시간과 다양한 공간, 이질적 문화가 서로 섞이며 소통을 시도한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 그가 집을 짓게 된 이유는 공간의 이질감에서 비롯됐다. 서울에 살 때는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완벽히 인지했으며, 공간 자체가 자아의 일부로 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낯선 미국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공간 인식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 1인치와 1파운드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길이와 무게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공간과 문화, 자아가 일체화되지 못하고 겹돌았던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도호는 자를 들고 다니면서 공간의 크기를 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집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서도호의 집 시리즈는 창살 문양, 서까래, 세면기, 손잡이, 경첩, 벽돌 등 그것이 한옥이든 양옥이든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정교한 손바느질로 섬세하게 표현돼 있다. 게다가 투명한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이 갖고 있는 무거운 물질성이 증발돼버린다. 이 얼마나 하늘하늘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집인가. 심지어 그 집들은 착착 접어서 어디든 갖고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서도호가 만들어내는 집이 21세기 노마드적 삶의 아이콘이라 말한다. 실제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마드적 삶을 살고 있다. 이동의 궤적과 일상의 흔적을 꼼꼼하게 담아낸다는 점에서 서도호의 집 시리즈는 일종의 자화상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자화상 그 이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그의 작품을 멀리 떨어져서 ‘감상’만 하지 않는다. 그 속에 들어가 집 안을 거닐어보고 공간을 느껴본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집도 이랬는데’ 하며 옛날 추억을 소환하거나 그곳이 자신의 일상 공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며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도호의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관람객 각자의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서로 섞여드는 것이다. 서도호가 짓는 집은 바로 그런 집이다.





아로마 테라피

하루의 긴장을 풀어준다

아로마 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향기 요법이다.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로마 테라피의 다양한 방법 중 혼자서도 쉽게 활용하기 가장 적당한 것은 목욕법이다. 욕조 목욕의 경우 1회 사용량으로 아로마 오일 6방울 이내가 적당하다.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욕조 목욕을 하게 되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아로마 오일이 피부에 잘 흡수된다. 욕조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맡으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하루의 걱정과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 또한 명치까지만 몸을 담그는 반신욕과 수욕이나 족욕 같은 부분욕도 하루 종일 긴장한 몸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좋다. 부분욕의 경우 평소 손발이 차거나 체온이 낮은 사람이라면 뜨거운 물에 아로마 오일 2~3방울을 넣고 손이나 발을 담그면 된다. 자신의 취향과 체질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곤두서 있던 신경이 가라앉고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특별한 준비 과정 없이도 지친 하루의 끝을 여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수고한 자신을 향한 격려 한마디는 또 다른 내일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할 것이다.

우리는 잘 쉬고 있을까?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몇 가지 테라피 요법을 소개한다. 각자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는 힐링 테라피로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즐겨보자.

집에서 즐기는 셀프 힐링 테라피



참고. <내츄럴 식물 테라피> / 카린 번델 & 니키 호퍼 지음, 유선옥 감수, 김은지 번역 / 성인북스

◎ **식물 테라피** ————— 식물 테라피는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제조 과정만으로 생기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피 방법이다. 식초, 양파, 사과, 캐모마일, 블루베리, 레몬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간단한 과정으로 식물 테라피가 완성된다. 감기에 효과가 있는 양파 양말, 피로를 회복해주는 장미 식초, 불면증에 도움을 주는 허브 파우치, 해독에 영향을 주는 민들레 디톡스 시럽 등 다양한 식물 테라피가 우리의 지친 삶에 색다른 즐거움을 불어넣을 것이다.



참고. <당신이 원하는 자유의 시간, 컬러테라피 1> / 한국컬러테라피협회 지음 / 디톡스북스

◎ **컬러 테라피** ————— 컬러 테라피는 컬러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개인의 심리에 따른 컬러를 이용한 음식, 소품 등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한 기운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빨강, 활력과 생기의 주황, 호기심과 집중력의 노랑, 아픔을 치유하는 평화의 초록, 소통과 계획의 파랑 등. 이런 색채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글. 이명석(문화평론가)
 일러스트레이션. 이철민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다. 일일 연속극에는 막장 가족, 리얼리티 예능에는 연예인 가족이 나온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진짜 가족들이 있다. 이 진짜들은 먼 도시에서 일하느라 명절이 아니면 부모의 얼굴을 보기도 어렵다. 한집에 살더라도 직장, 학교, 학원에 매달려 서로의 생사만 확인하며 지낸다. 그리고 어쩌다 마주치면 싫은 소리를 내뱉고 마는, 남보다 어려운 가족도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진짜 가족다운 가족을 얻을 수는 없을까? 다음의 주인공들로부터 힌트를 얻어보자.

가족은 모순 덩어리, 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만화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에서 유이치는 대머리가 되어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왔다. 경제 사정도 안 좋아졌고 이혼 뒤에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해졌다. 그래서 나이 든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지역 정보지의 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가끔 집에서 쉴 때도 부모와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TV 화면을 말없이 보다가, 가끔 낄씨나 빨래 같은 이야기나 할 따름이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어 어머니가 속옷을 감춘다든지 냉장고의 코드를 뽑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를 요양 시설로 보내고 정기적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이봐요들. 이 나쁜 놈 좀 잡아가요.” 유이치가 시설에 찾아가면 화가 치솟은 어머니가 욕설을 내뱉는다. 그때는 얼른 모자를 벗어야 한다. “엄니, 이거 봐!” 그러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라, 너였냐? 머리가 아주 깨끗이 벗어졌구먼.” 어머니는 아들의 대머리를 두드리며 정신을 되찾는다. 그러곤 까무룩했을 때의 환상에 대해 들려준다. 그것은 어머니 미쓰에의 잊혀진 삶이었다. 아들은 페코로스(작은 양파)라는 필명으로 그 내용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과거는 애틋하고 현재는 슬프지만, 아들은 그것을 유머로 버무려 내놓는다. “아까 네 아버지가 왔었어야.” 아버지는 젊은 날에 술에 빠져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환상 속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고 엮드리며 말한다. “생전에는 고생만 시켜서 참말로 미안했소.” 어머니는 쉽게도 용서한다. 맛있는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겠다고 한다. 아들은 어머니의 작고 둥근 등에 고치처럼 숨어 있는 날개를 본다.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우아한 거짓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는 노부모만이 아니다. 김려령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최악의 충격으로 우리를 흔든다. 어느 날 천지라는 여중생이 스스로 목을 맨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온 엄마는 영문을 알 수 없다. 말 없고 매물찬 성격의 큰딸 만지도 아니었다. 집안 정리 잘하고 살갑던 작은딸 천지였다. 만지 역시 동생의 자살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다 동생의 교실에 있던 국화를 치우려 갔고, 천지와 단짝인 줄 알았던 화영을 만난다. 그리고 둘 사이가 결코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간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변 아이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다. 도서관에서 천지를 자주 봤다던 남자도 눈치를 챘던 것 같다. 가장 가까이 지내던 가족들만 모르고 있었다. 천지는 몇 번이고 SOS를 보냈다. 엄마, 아파서 학교 가기 싫어. MP3 플레이어가 꼭 필요해. 언니는 친한 척하며 뒤에서 욕하는 애 없어? 나는 짜장면이 너무 싫어. 가족들은 몰랐거나 모른 척했다. 그 나이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지. 내 삶도 힘든데 애들 일까지 꼬치꼬치 따져야 하나? 언니와 엄마는 비밀을 알아갈수록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다.

천지는 선물을 남겨두고 갔다. 다섯 개의 실타래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그 안에 전해주고 싶은 말을 숨겨두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실타래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천지가 왜 죽었는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가해자를 찾아내는 게 해답이 아니다. 이미 가해자는 또 다른 따돌림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 힌트는 이것이다. 이 세상은 작은 가족으로는 버틸 수 없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아파트에서 쥐를 잡는 더 큰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가족이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자매들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바닷가 카마쿠라 마을에 사는 세 자매는 15년 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다. 부인과 딸들을 남기고 다른 여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다. 세 자매는 저마다의 성격도, 아버지와 나눈 경험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장례식을 찾아가는 마음도 제각각이다. 첫째는 아버지가 떠난 뒤 재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오랜 미움이 있지만 어른스럽게 격식을 차린다. 술과 남자를 좋아하는 둘째는 사랑 때문에 무책임했던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느낀다. 천방지축인 셋째는 아버지의 기억이 전혀 없기에 오히려 그가 궁금하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여동생을 만난다. 그녀의 어머니도 아픈 아버지를 맡긴 채 떠나버린 상태다. 기차를 타고 돌아갈 때 첫째가 여동생에게 묻는다. “카마쿠라에 갈래?”

겉보기엔 단란한 네 자매의 일상이 시작된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막내에 대해 말한다. “너희들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의 딸이잖아.” 막내 역시 ‘자신의 존재만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용히, 누구보다 의젓하게 생활한다. 무책임한 엄마 대신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너무 일찍 어른스럽게 커온 때문이다. 그러다 매실주를 잘못 먹고 취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아빠 바보” “싫어. 나도 알게 뭐야.”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막내는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아이다움을 되찾아야 한다. 예순 살 먹은 <페코로스>는 어머니 앞에서 엉석받이 꼬마 역할을 해야 한다. <우아한 거짓말>의 천지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 모두가 그들의 선택에 동의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가족은 어쨌든 모순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존재다. 그 과정을 이겨내는 자만이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다.



살아온 힘, 살아갈 이유 홈 스위트 홈, 가족이 있기에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
힘겨운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지금 내 곁에서 천사처럼 환히 웃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고백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더욱 살 만하다고.
밤하늘 별빛마냥 불 밝힌 집 창밖으로
따뜻한 웃음소리 캐럴인 듯 들려옵니다.

경계의 땅 철원 그 청정한 자연과 생태의 신비 속으로

강원도 중에서도 철원은 특히 외지로 느껴지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눈과 바람을 피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게 겨울여행의 묘미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과 생태의 신비는 용기 내어 철원을 찾은 이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겨울의 낭만과 이색적인 즐거움을 찾아 철원으로 길을 떠나보자.

글. 허재훈(편집실) 사진. 김동율, 철원군청, 단행본 <철새협동조합>



01

용암이 길을 내고 기암괴석이 사람들을 부르고

철원은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현무암 지대 위에 자리하고 있다. 보통 현무암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륙 지방 중에서 용암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형은 철원이 유일하다. 그런 만큼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 자연이 빚어내는 절경도 이색적이고 색다른 매력이 넘친다. 용암이 빚어낸 명작 중에서 한탄강을 빼놓을 수 없다. 현무암 사이의 갈라진 틈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강은 한결 리드미컬한 곡선미를 갖추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철원을 상징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쯤에서 예상치 못한 강 이름의 유래가 궁금해진다. 사실 한탄강은 ‘한탄스럽다’는 뜻과 상관없이 일제강점기에 붙은 명칭이다. 조선시대까지는 큰 여울이라는 뜻의 ‘대탄’으로 불리다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 편의에 의해 한탄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본래 이름은 ‘체천’이다. 수직의 현무암 절벽이 잘 다듬어진 돌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탄강을 찾

01
고석정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변에 자리해 있다. 용암이 식으며 형성된 지형과 기암괴석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 이름의 유래가 된 수직으로 매끈하게 뾰은 절벽의 위용을 직접 확인해보자.

폭포가 선사하는 호연지기, 철볼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옛 시절, 한다하는 화가나 선비들의 꿈은 금강산 구경이었다. 신선이 산다는 봉우리와 경치를 만끽하며 작품을 남기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당대 최고의 여행 코스였다. 그 금강산 가는 길에 여행객들이 반드시 들러 감상하는 비경이 있었으니 바로 철원군 갈말읍에 자리한 삼부연 폭포다. 세 굽이로 꺾이며 흘러내리는 폭포는 말 그대로 현실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진다. 특히 폭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 겸재 정선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어 더욱 흥미진진하다. 그림의 흥을 돋우기 위해 자주 금강산행에 나섰던 겸재는 지나는 길에 이곳 삼부연 폭포에 들러 붓을 가다듬고 화폭에 선경을 옮겨 그렸다. 그러니 삼부연 폭포를 찾는다면 사진 대신 겸재 정선의 마음과 시선을 떠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폭포와 마주하며 시원한 그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고민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신라의 유적이나 유물 하면 경주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철원군 동송읍 도피안사에는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불상인 철조비로자나불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당시 신라의 수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북쪽 변방인 데다가 공교롭게

수십 년 뒤 궁예가 고구려의 도움을 세운 철원 땅에서 만나는 통일 신라의 철불은 남다른 감회를 선사한다. 선하고 단정한 눈매와 매끈한 얼굴형은 철이라는 소재의 한계를 넘어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전해준다. 신라 불상 중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은 많지 않은데 이 철조비로자나불은 등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경문왕 5년, 즉 865년 1월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값이 저렴하고 지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민중의 부처님, 철조비로자나불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 숨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02

월정리역은 현재 남한에 있는 경원선의 최북단 역이다. 하지만 민통선 안 DMZ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열차가 운행되지는 않는다.

03

조선노동당사가 내려다보이는 철원을 관전리의 이은규유리갤러리.



02



03



04
철원 절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삼부연폭포. 풍광이 빼어나 많은 문인 화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다.



05
철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추냉이 재배지이다. 일년 내내 솟아나오는 샘통의 맑은 물이 철원 고추냉이의 성공 비결이다.

철원에 뿌리내린 예술, 철원이 기른 청정한 맛
철원의 자연을 감상했다면 이제 아가자기한 철원의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다. 철원군 철원을 관전리, 민간인 통제선을 앞에 두고 아늑한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유리·금속 공예 아티스트, 이은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은규유리갤러리다. 해방되던 해 철원군 관전리에서 태어나 미술을 전공하고 일본 유학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미술상을 수상한 그는 황혼기 다시 고향을 찾아 희망의 예술, 평화와 화합의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갤러리에 들러 언 몸을 녹이며 철원의 새로운 내일을 노래하고 있는 그의 열정적인 작품들을 감상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줄 것이다.

철새, 겨울 철원의 진짜 주인

겨울 철원은 관광객만큼이나 반가운 손님들이 북적인다. 하늘을 까맣게 덮고 나는 철새들이 그 주인공이다. 추수가 끝난 철원평야를 유유자적 거닐며 낙곡으로 배를 채우는 쇠기러기를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재두루미와 두루미, 기러기, 독수리를 포함해 겨울 철원을 찾는 철새는 30여 종에 이른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초가을, 이곳 철원에 자리를 잡는데,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그중 일부는 다시 포근한 남쪽으로 이동한다. 겨울 철새를 관찰하기 좋은 곳으로는 철원군 동송읍 이갈리의 토교저수지가 제격이다. 특히 저수지 인근 양지리는 ‘두루미마을’이라 불릴 만큼 많은 두루미가 모여드는 핫 포인트다.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접경 지역에 자리한 덕분에 청정한 자연 환경이 유지될 수 있었고 자연히 철새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성한 먹이와 머무를 동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토교저수지와 인근 동송저수지, 샘통저수지 등 철새들의 터전에서 관찰할 때에는 언제나 ‘철새가 진짜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라는 자세를 기억하도록 하자.



06

06
겨울 철원은 버 대신 철새들로 풍성하다. 고고한 자세로 한 다리를 접고 서 있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와 눈 내린 눈을 성큼성큼 걷는 두루미(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들은 10월 말부터 철원을 찾아와 이듬해 2월 말까지 지낸다.

분단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노래하다

철원은 이른바 안보 관광의 중심지이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철원은 잠시 북한이 차지했다가 전쟁 후 우리 영토가 되었다. 그 당시의 비극을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의 옛 조선노동당사다. 치열한 격전의 결과, 근처 다른 건물은 모두 부서졌음에도 이곳만은 형체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슬픈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현재 조선노동당사 앞에는 배영환 작가의 작품, <빛의 사원>이 설치되어 아픈 역사를 위로하며 새로운 철원의 내일을 노래하고 있다.

겨울 철원은 우리에게 숨겨진 볼거리와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전해준다. 자연과 한 걸음 가까이하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철원 여행. 분단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이곳 철원에서 겨울 여행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더 빛나는 봄을 기다려본다.

100.9km

철원 여행 코스 총 주행거리



1박 2일 철원 여행 코스

첫째 날

- 고석정
- 제2땅굴(21.3km / 52분)
- 철원평화전망대(6.2km / 20분)
- 월정역, 철원두루미관(4.2km / 15분)
- 노동당사(14.2km / 28분)
- 도피안사(3.0km / 5분)
- 직탕폭포(7.2km / 12분)

둘째 날

- 고석정국민관광지(6.0km / 10분)
- 승일공원, 승일교(1.5km / 2분)
- 순담계곡(2.4km / 4분)
- 한탄강(7.7km / 12분)
- 삼부연 폭포(6.3km / 11분)
- 잠곡저수지(20.9km / 30분)

- 1-1 고석정 강원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 1-2 제2땅굴 강원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 1-3 철원평화전망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14
- 1-4 월정역, 철원두루미관 강원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2489
- 1-5 노동당사 강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3-2
- 1-6 도피안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
- 1-7 직탕폭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 2-1 고석정국민관광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창동로 2386
- 2-2 승일공원, 승일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550

- 2-3 순담계곡 강원 철원군 갈말읍 순담길
- 2-4 한탄강 강원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 2-5 삼부연 폭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3-4
- 2-6 잠곡저수지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 3-1 토교저수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 3-2 전선휴게소 메기매운탕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1-6
- 3-3 이은규유리갤러리 강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 3-4 금학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 3-5 명성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철원 여행 길잡이 철원을 즐기는 몇 가지 방법

01. 도피안사



도피안사는 우거진 주변 숲이 병풍처럼 둘러진 차분한 분위기로 신라 말 도선국사가 1,500여 명의 향도들과 함께 철불을 조성하고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절이다. 이곳에는 삼층석탑과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가 가득한 도피안사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올림을 주고 있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도피동길 23 / 033-455-2471

02. 철원평화전망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철원평화전망대의 1층은 제2땅굴 모형과 북한의 주요 도발일지, 북한의 생활 등을 정리해놓은 전시관, 2층은 300석 규모의 전망대와 야외관망대로 꾸며져 있다. 초정밀 망원경시설과 함께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지형축소 모형판이 있어 민족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14 / 033-450-5440

03. 한탄강 래프팅



래프팅 마니아들이 특히 열광하는 순담계곡 일대는 침식된 현무암 지대가 이룬 약 30m의 협곡으로,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시키는 장관을 이룬다. 한탄강의 기암절벽과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작은 폭포들, 병풍을 연상시키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 철원군 한탄강 일대 / 033-450-4126(철원군청 관광과)

04. 전선휴게소 메기매운탕



분단의 상흔 따라 걷는 여행길에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우는 데 전선휴게소 메기매운탕만 한 게 없다. 물 맑은 철원에서 잡아 올린 기운 넘치는 메기는 물론, 주인장이 직접 농사지은 고추와 마늘을 아낌없이 넣어 끓여내는 매운탕은 기막힌 열큰함으로 한술 넘기면 금세 땀방울이 맺힌다.

©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1-6 / 033-458-6068

꿈과 도전이 담긴 피규어 또 다른 나의 가족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이승준

가족이라 칭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쿨레인’이라는 예명의 피규어 아티스트 이찬우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피규어들은 그에게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피규어들과 동고동락하는 피규어 아티스트 쿨레인을 만나 ‘가족’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쿨레인(Coolrain)’ 이찬우 작가를 만난 것은 그가 피규어 전시차 향했던 스페인에서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이어 계획된 국내 전시를 위해 피규어를 하나씩 포장하는 이찬우 작가의 손길은 무척 조심스러웠다. 행여나 서로 부딪힐까, 긁히지는 않을까 야기를 다루듯 섬세한 손길에서 피규어를 향한 그의 무한한 애정이 느껴졌다.

이찬우 작가는 피규어란 단순한 직업적 의미를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라 말한다. 자신이 제작한 피규어를 친구도 연인도 아닌 ‘가족’이라고 꼭 짚어 소개하는 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크기에 상관없이 피규어 하나를 만드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동일한 피규어와 매일 얼굴을 맞대는 셈이죠. 이때 각 피규어

의 고유한 성격과 말투나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피규어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 시간을 거쳐 피규어 각자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제작된 피규어 중 이찬우 작가가 가족 같이 느끼는 다섯 가지 피규어가 있다. 어린 시절 꿈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우주인 ‘아스트로 보그’. 영화 <스타워즈> 속 캐릭터인 다스베이더의 일상의 느낌을 담은 ‘모노베이드’. 우주와 한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담고 있는 ‘레드볼 스트라토스’.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재로 만들어 나무 특유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덩키즈 나무’. 처음으로 큰 사이즈로 제작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스코티피펜’. 이 다섯 가지 피규어에 유독 애착이 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피규어들에게



이찬우 작가의 꿈과 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뽑은 ‘아이들’이 다섯 종류이지만 이찬우가 생각하는 피규어 가족의 범위는 더욱 넓다. 실제 가족도 때로는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외면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찬우 작가에게는 피규어 역시 고비가 되는 순간들이 있음에도 중력에 이끌리듯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듯 가족만큼의 애정을 쏟는 이찬우 작가에게는 피규어 역시 ‘가족’이라 이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실제 가족과 피규어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두 가족 모두가 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고 다가올 내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두 가족에게는 제 수고와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쏟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것도 동일한 지점이지요.”

그렇다면 실제 가족에게 이찬우 작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쁜 일정 탓에 우선 실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바쁜 일정에 대해 무척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그래서 작업 외의 시간은 가족들에게 할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부재와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찬우 작가가 1세대 피규어 아티스트로서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가족들의 든든한 사랑 덕분이었다. 언제나 자신의 옆을 지키며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꾸준히 피규어 가족의 수를 늘려나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찬우 작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피규어 아티스트 이찬우. 그에게는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가족들을 모티프로 한 가족 피규어 시리즈를 만드는 일이다. 피규어 가족과 실제 가족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찬우 작가의 움직임이 그의 더욱 빛날 날들을 응원하게 한다.



01

01 미니어처 신발

피규어 제작 과정에서 이찬우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신발 제작. 피규어를 좋아하는 이들 역시 이를 아는 듯 디테일이 살아 있는 그의 미니어처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직접 해당 브랜드의 미니어처 신발을 만들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처럼 이찬우 작가에게 피규어 제작은 즐거움 그 자체이자 작가와 세상을 이어주는 창이기도 하다.

02 꿈과 현실을 잇는 책

피규어 아티스트 이찬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권의 책. 바로 <아키라 월드>와 <NBA 위대한 50인>이다. 대학 시절 <아키라 월드>를 보며 피규어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NBA 위대한 50인>을 보며 어린 시절부터 선망의 대상이던 NBA 레전드 시리즈 피규어 제작을 진행한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찬우 작가가 피규어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어준 두 권의 책은 펼쳐볼 때 마다 설렘과 감동을 선물한다.

03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

아이디어 초기 단계의 스케치들을 모아놓은 파일. 어린 시절 이찬우 작가의 '우주인'이라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주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찬우 작가의 못다 이룬 꿈이 피규어를 통해 이루어진 셈. 많은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담긴 우주인 초기 스케치는 작가에게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04 스타워즈 비디오

이찬우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스타워즈> 비디오. <스타워즈> 피규어 작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수없이 돌려봤던 비디오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는 비디오를 플레이해볼 수 없게 되었지만 <스타워즈> 비디오를 보면 지나간 노력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기억난다.



02



03



04

실내에서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바르게 겨울철 반려견 돌보기 A to Z

해가 짧아지고 추위에 한껏 몸을 움크리게 된다.

반려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길어지는 실내 생활에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 반려견이 겨울철 실내 생활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정리. 권지혜(편집실) 감수. 24시 수유 바른펫 동물의료센터



01 강아지의 피부와 털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겨울이 되니 저희 집 강아지도 건조한지 털이 푸석해지고
피부에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걱정이예요. 겨울철 강아지의
털과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역시 피부가 약해지면서
비듬과 각질 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가려움증이 심해지면서 상처
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피부 기생충과 세균에 의한 감
염이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다른 동물로부터의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
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반려
견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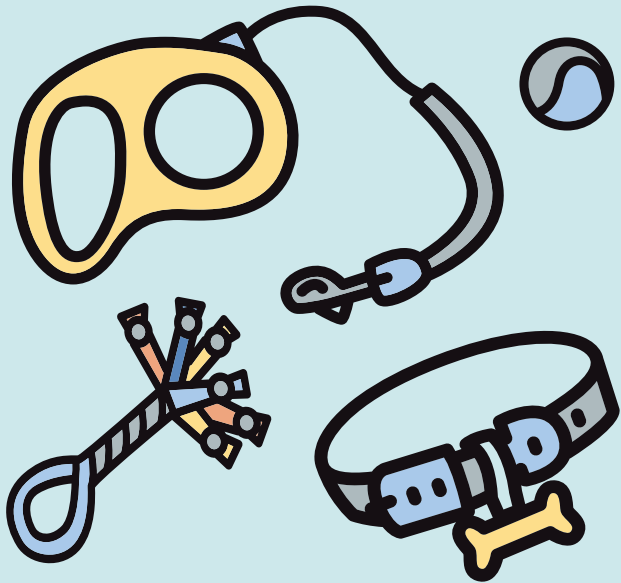
우선 겨울철 반려견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실 부분은 ‘목욕’
일 텐데요. 겨울철에 반려견을 자주 목욕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잦은
목욕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견의 털과 피부
의 지방이 빠져나가 피부를 상하게 하여
비듬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요. 목욕은 가급적 자제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후 보습제나 컨디셔너 등을 이용하면
반려견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털을 자주 빗질해주는 것도
반려견의 피부와 털 관리에 좋은 방법입니
다. 겨울철 반려견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
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위해 영킨 부분을 빗어주고 전체적
으로 꼼꼼하게 빗질을 해줍니다. 매일 빗
질을 해주면 오염 물질과 빠진 털이 제거
되며 반려견의 피부를 자극해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킨 털은 겨울
철 눈이나 비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해주지
못하며 이물질 역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털 관리는 건조한
겨울 동안 비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며 모근을 강하게 만들고 피부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02 추운 겨울에 강아지와 산책을 해도 될까요?

“

날이 추워지니 매일 하던 산책을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너무 추울까 걱정이고, 집에만 있자니
저희 강아지가 너무 답답해해서 고민이에요.
겨울철 강아지와 산책해도 될까요?”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반려견들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지루함은 반려견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의 경우 주 1~2회 정도 따스한 날 한낮에 30분 내외로 짧게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산책 시에는 반려견용 옷과 신발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견은 동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상 이외에도 염화칼슘이나 연탄재, 유리파편 등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발을 신겨주고, 산책 후 반려견의 발바닥을 꼭 확인해줍니다. 한편 반려견 산책 시 타인의 안전을 고려한 목줄을 채워주는 등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더욱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야외에서 운동을 시켜줄 만한 곳이 부족하거나 감기 등의 질병이 걱정된다면 일광욕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반려견이 충분히 일광욕을 즐기도록 해준다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령견이나 어린 반려견들은 가급적 겨울철 외출을 삼가고 산책 대신 일광욕을 시켜주는 것이 겨울철 반려견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추운 날이라면 산책보다는 실내에서 간단한 놀이를 하며 운동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이나 인형 등 평소 반려견의 장난감을 던져 주워오게 하는 놀이나 아파트나 빌라에 있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놀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애견카페에 가서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며 뛰어 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햇볕이 드는 날이라면 반려견과 산책을 나서도 좋지만, 무척 추운 날이라면 실내에서도 반려견에게 신나게 뛰어 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우리 강아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강아지가 움직임도 적어지고 부쩍 체중이
늘었어요. 날씨가 추워 산책도 자주 시켜줄 수 없어서
걱정이에요. 건강하게 강아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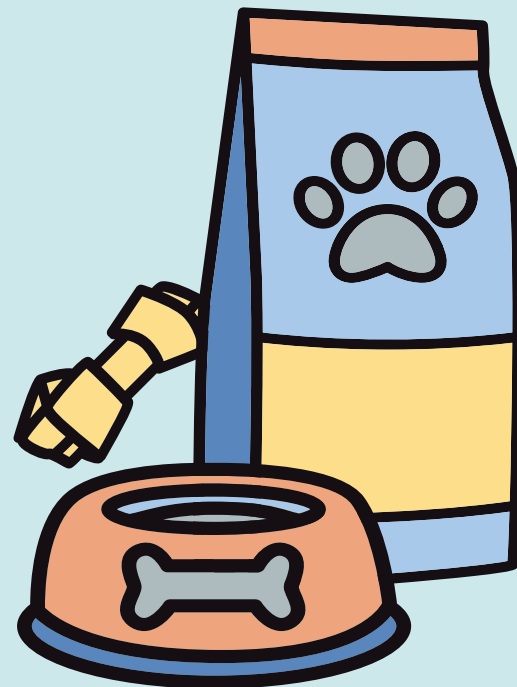
비만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견에게도 위험한데요.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신에 관절염 또는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과다로 간에 부담이 가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결국 간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반려견의 체중 관리의 중요함입니다.

반려견의 체중 조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산책이나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아닌 식단 관리를 통한 체중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체중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사료를 다이어트 사료로 교체하는 일입니다. 다이어트 사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적은 열량으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을 통해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을 높여 쉽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야외 활동이 적고 체중이 증가한 반려견의 경우 간식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면 꼼꼼하게 열량 체크를 한 후 저지방 간식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또한 사료 이외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 체중 관리가 힘들어지는데요. 특히 치킨이나 피자 등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사료를 잘 먹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강

아지 사료 위주의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람 음식을 간식으로 먹는 것에 길들여진 반려견이라면 가족들이 식사할 때는 잠시 다른 곳에 격리해야 합니다.

반려견 체중 조절 시 반드시 알아둘 것은 다이어트가 지나치면 영양실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목표 체중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칼로리 계산과 영양 공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홈 파티 테이블에서 즐거운 이야기가 넘쳐흐르다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김진호

푸드스타일리스트. 장보현

평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남편, 아바라면 이번 겨울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자.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홈 파티에서 푸짐한 닭가슴살 토르티야롤과 따뜻한 뽕소라면 어느새 근사한 한 상이 완성된다. 다가오는 주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홈 파티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2017년 달력이 채 한 장도 남지 않은 시점.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혹은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을 초대해 가벼운 홈 파티를 열기도 한다. 그동안 앞만 보며 바쁘게 달려온 만큼 연말이면 한 해를 함께 보낸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에 비싸고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정성을 가득 담은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어떨까?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연말 홈 파티에 제격인 닭가슴살 토르티야롤과 뽕소를 만들어보자.

토르티야 위에 취향에 맞는 소스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을 올려서 요리한 후 예쁘게 잘라, 플레이팅을 하면 어느새 그럴싸한 요리가 탄생한다. 기호에 따라 닭가슴살 대신 불고기나 참치, 감자 등을 넣으면 다양하게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진다. 취향대로 만든 토르티야롤과 함께 맛과 건강, 행복까지 챙길 수 있다.

닭가슴살 토르티야롤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채소와 닭가슴살이 어우러져 훌륭한 맛은 물론 알록달록 예쁜 색깔까지 낸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닭가슴살 토르티야롤 트리를 만들어보아도 좋겠다. 접시 위, 아바가 만든 닭가슴살 토르티야롤과 아이들의 데커레이션이 함께한



다면 더할 나위 없는 플레이팅이 완성될 것이다.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는 땀 흘린 잔을 건네보는 것이 어떨까. 아내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직접 끓인 땀 흘린 잔과 함께 진심의 말 한마디가 곁들여진다면 가족의 내일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홈 파티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포만감과 따뜻함이 포근하게 차오를 것이다.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운 홈 파티로 힘을 얻고 또다시 찾아올 새로운 한 해를 반갑게 맞이해보자.



다양한 토르티야를 재료

- 01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 칼로리가 낮으며 고기의 맛이 매우 담백하다.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토르티야를 재료로도 인기가 많다. 무엇보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한 재료.
- 02 불고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는 토르티야를의 재료로도 훌륭하게 사용된다. 불고기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채소와 잘 어울려 토르티야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맛과 포만감까지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불고기가 가장 좋은 토르티야를 재료가 될 것이다.
- 03 두부**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한 질이 좋은 것으로 소화흡수율도 매우 높다. 또한 채소 요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신선함은 물론 담백한 맛까지 선사한다.
- 04 훈제 오리** 오리는 콜라겐 성분이 있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머스터드 소스와도 잘 어울려서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재료다.
- 05 연어** 연어는 EPA, DHA 등 오메가-3 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영양 간식을 생각한다면 연어는 훌륭한 재료가 될 것이다.
- 06 치즈** 치즈에는 칼슘,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다. 치즈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채소와 함께 영양과 맛의 균형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토르티야를 재료로 적당하다.

닭가슴살 토르티야를 / 땀 흘린 잔



닭가슴살 토르티야를

닭가슴살 토르티야를은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메뉴다. 아삭한 채소의 식감과 고소한 닭가슴살의 맛이 우리의 입맛을 자극한다.

[재료(토르티야를 1개 기준)]

닭가슴살 200g, 양상추 · 파프리카(삼색) · 적당량, 슬라이스 치즈 한 장, 크림치즈 소스 50g, 사워크림 소스 50g, 디종머스터드 소스 10g

01. 준비된 크림치즈, 사워크림, 디종머스터드 소스를 잘 섞어준다.

02. 토르티야를 펴고 소스를 한 스푼 펴 바른다.

03.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차례로 얹어준다.

04. 닭가슴살은 겉대로 찢어 남은 소스와 섞어 올린다.

05. 토르티야를 잘 말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땀 흘린 잔

레드 와인과 간단한 재료만 있다면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땀 흘린 잔이 완성된다. 땀 흘린 잔은 맛은 물론, 감기 예방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해서 겨울철이면 더욱 생각나는 메뉴다.

[재료(땀 흘린 잔 기준)]

레드 와인 500ml, 오렌지 1개, 시나몬 스틱 1개, 팔각 1개, 설탕 1t 스푼

01. 냄비에 레드 와인을 붓고 오렌지 반쪽을 찹찹해 섞는다.

02. 시나몬 스틱과 팔각,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센불로 끓인다.

03. 끓기 시작한 후 3~5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된다.

필요해 만들고 오래 두고 쓰다 금속공예가 심현석의 쓸모 있는 가방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이승준

금속공예가 심현석은 금속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 심현석 작가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작업대 앞에 선다. 손으로 만드는 일의 수고스러운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금속공예가 심현석의 가방을 함께 열어보자.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자. 나를 둘러싼 물건들 중 오랜 시간을 함께해 애정이 가는 물건이 몇 개나 될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구입하며 또 쉽게 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심현석 작가는 이렇게 버려지고 사라지는 물건들에 주목했다. 작은 물건 하나일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에서 조금 더 따뜻한 온도를 느끼길 원했고, 본인이 그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걸 왜 손으로 만드는데?’ 할 법한 것들도 심현석 작가의 손을 거쳐 태어난다. 볼펜, 카메라, 커피 주전자, 주방 도구 등.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모든 도구가 심현석 작가의 소재이자 주제가 된다.

“하루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일상에서는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볼펜이 그랬어요. 유독 볼펜을 잘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싼 볼펜도 사보고 잃어버리지 말자고 스스로 결심도 해봤는데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볼펜을 만들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은과 구리로 볼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든 이의 온기가 담긴 물건은 더 오래도록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상 도구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심현석 작가는 꾸준히 손으로 작품을 만들며 지극히 아날로그 방식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작업 재료는 ‘금속’이다. 심현석 작가가 금속에 빠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자신과 비슷한 성질에 대한 자연스러운 끌림이었다.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금속의 성질이 심현석 작가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닐 때 학기 초에는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쉽게 친해 지곤 하잖아요. 금속과 제가 그런 관계 같아요. 저는 명확하고 꾸밈 없는 것이 좋아요. 또 작업대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작업 과정을 스스로 컨트롤 하고 싶거든요. 이런 저에게 금속의 군더더기 없는 순수함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금속의 디테일과 섬세함이 매력적으로 다가 온 거죠.”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된 심현석 작가. 이런 그에게도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금속이기에 잠깐의 방심도 작품과 이어지기 마련. 이런 작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심현석 작가만의 방법은 또다시 ‘손으로 만드는 일’이다.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조금은 삐뚤빼뚤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공예를 하는 온전한 ‘심현석’만의 시간. 심현석 작가가 오래도록 같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작업과 휴식의 균형을 조절할 줄 아는 현명함 때문일 것이다.

“제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시소’ 같은 거예요. 작업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또다시 만들면서 풀어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어느 쪽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이 두 쪽의 무게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다른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이 제 작업 그리고 일상에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처럼 심현석 작가 역시 자신의 작업과 삶의 균형을 스스로 관리하며 비우고,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작업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심현석 작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특별하고 대단한 계획은 없다. 그러나 지름길이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금속공예’라는 한길을 20년 이상 뚜벅뚜벅 걸어온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이 아닐까. ‘금속공예가’ 심현석으로서 끈기와 노력으로 일궈낸 그의 내일이 자못 기다려진다.



01 돋보기 심현석 작가는 은으로 직접 만든 돋보기다. 금속 이음새 부분의 마감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그의 작업은 미세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어져야 하기에 작업 시 돋보기는 필수적이다. **02 구둣솔** 작업대 위에서 사포질이나 줄질 후 나오는 가루 먼지 등을 모을 때 빗자루 대용으로 사용하는 구둣솔이다. 오늘 작업의 마무리와 내일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함께하는 아이템. **03 카메라** 심현석 작가는 은으로 만든 35mm 필름카메라다. 오래전 만든 카메라지만 여전히 기쁘고 싶은 풍경과 순간을 담고 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든다는 심현석 작가의 가치와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이템이다. **04 이어폰과 명함집** 이어폰을 명함집(금속공예, 가죽공예가 한규익 작품)에 담아 사용한다. 심현석 작가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수공예품을 사용하려고 한다. 손으로 만든 물건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드러난다. **05 안경집** 돋보기 안경을 보관하는 안경집은 금속공예가 김준수의 수공예품이다. 안경집은 오래 사용해 손때가 묻었지만 심현석 작가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아 앞으로도 십 년은 너끈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06 볼펜** 은과 구리로 만든 볼펜으로 심현석 작가의 필수품이다. 10년을 넘게 매일 같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어떤 아이템보다 오래, 자주 사용하기에 심현석 작가에게는 유독 애착이 가는 아이템이다.

건조하고 뻑뻑한 눈 겨울철 눈 건강 관리법

겨울이 찾아오면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의 수분마저 줄어든다. 건조함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여러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눈은 여러 신체 부위 중에서도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을 소개한다.

정리. 신병철(편집실) 감수.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건조한 겨울은 어느 때보다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다.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우리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눈물이 마르게 된다. 눈물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뻑뻑함, 이물감 등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50분 업무, 10분 휴식’처럼 업무시간을 윤통성 있게 조절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나 먼 곳을 바라보도록 하자.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대고 휴식을 취하면 더욱 좋다. 업무 중에도 의도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거나 중간중간 눈을 돌려 창밖을 보는 등 바쁘게 움직이던 눈을 쉬게 하고, 초록색 등 눈에 편한 자연의 색을 보거나 안과에서 처방받은 일회용 인공눈물을 수시로 점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겨울이 되면 춥다고 무작정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 중의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난방은 자제하고 실내 온도를 18°C에서 22°C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추운 바깥 공기 탓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염된 공기를 피하는 것은 눈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 하루 세 번 환기하도록 하자. 또한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60% 이상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몸이 피곤할 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듯이 눈 역시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 수 있다. 먼저 눈을 뜬 상태에서 눈동자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각각 5번씩 움직인 뒤 눈을 감고 위아래로 5번 반복해 움직인다. 다시 눈을 뜬 상태에서 좌우로 반복해 움직인 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후 감은 눈 위에 대고 눈에 휴식시간을 준다. 이런 동작은 눈 주변의 근육을 풀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하루 한 번 이상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자.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 안구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된 포도, 안구 표면의 점막을 강화하는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등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피부뿐 아니라 눈도 촉촉해진다.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기 힘들다면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결명자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좋다.

겨울철 눈 건강 셀프 체크

건조한 날씨 탓에 눈이 쉽게 뻑뻑하고 피로해지는 겨울철, 현재 나의 눈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체크해보자. 아래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하면 눈이 많이 건조하고 피로한 상태이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자.

- ☐ 눈이 쑤시고 따끔거린다.
- ☐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 밝은 곳에서 눈을 뜨는 것이 힘들다.
- ☐ 눈에 통증이 느껴지고 최근 들어 시력이 떨어졌다.
- ☐ 눈꺼풀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 ☐ 눈이 피곤하면 곧잘 눈곱이 낀다.
- ☐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된다.
- ☐ 공기가 건조하거나 탁한 곳에 있으면 눈이 불편하다.
- ☐ 바람이 불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난다.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예방수칙 5

-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난방기구의 열기나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때는 눈을 더 많이 깜빡인다.
- 콘택트렌즈 착용을 줄이고 안경으로 대신한다.
- 세안은 속눈썹까지 꼼꼼히, 위생을 철저히 한다.



중형 럭셔리 세단의 신기원 GENESIS G70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단 라인업을 완성할 제네시스 G70이 공식 출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G70 출시로 중형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세단 라인업을 갖춰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한층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아함과 역동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디자인

제네시스 G70는 기품 있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외관, 품격과 기능성을 갖춘 실내, 소프트 터치로 마감한 소재,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외장은 제네시스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인 대형 크레스트 그릴의 상단에 헤드램프를 정렬해 넓은 전폭을 강조했다. 또한 전면부에서 후면부로 올라가는 형태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과 볼륨감 있는 서브 캐릭터 라인, 하키 스틱 형상의 크롬 창문 몰딩으로 빠르고 날렵한 에너지를 표현했다. 크롬 소재의 펜더 가니시는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다이내믹한 캐릭터를 완성한다.

실내 퀼팅 패턴의 시트는 천연가죽 및 나파가죽 소재를 적용해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움을 구현하는 디자인 요소로 스트라이프 퀼팅 및 렉서리 퀼팅 디자인이 운영된다.

01
제네시스 G70는 동적인 우아함과 스포티한 감성을 조합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을 담아냈다.

02
다크 크롬 가니시와 역동적인 디자인의 듀얼 머플러는 3.3T 스포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03
고급 가죽과 섬세한 스티치, 리얼 알루미늄 소재의 정교한 마감이 제네시스만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실재를 가득 메운다.

외장 컬러는 블레이징 레드, 그레이스풀 그레이, 레피스 블루 등 10종, 내장 컬러는 블랙 버건디 투톤, 베이지 그린 투톤, 스포츠 레드 등 7종이다.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성

제네시스 G70는 가솔린 2.0 터보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디젤 엔진을 장착한 디젤 2.2 그리고 가솔린 3.3 터보 등 총 3개의 라인업을 갖췄다.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2.0 T-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52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동력성을 확보했다. 디젤 2.2 모델은 2.2 e-VGT 엔진으로 최고출력 202마력(ps), 최대토크 45.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가솔린 3.3 터보 모델은 3.3 T-GDI



04



05



06

04
차체 평균강도 증대, 구조용 접착제 확대 적용, 결합구조 강화 등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를 완성했다.

05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주소 등의 검색결과를 복잡한 과정 없이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에 바로 안내해준다.

06
차량 정보를 8인치 이상의 영상 사이즈로 전면 윈드실드에 표시하며, 최적화된 밝기로 주간 시인성도 뛰어나다.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70마력(ps), 최대 토크 52.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G70 스포츠라는 별도 명칭으로 운영된다.

G70 스포츠는 제로백 4.7초(2WD 기준)의 가속 성능과 최대 시속 270km의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갖췄고,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 (VGR)과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기본 탑재해 민첩한 핸들링 응답성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제네시스 G70 특유의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후륜 고급 플랫폼을 새롭게 탄생시켰으며, 민첩한 선회 안정성, 정교한 스티어링 응답성 등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완성했다. 또한 주행 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음과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합성해 스포티한 엔진음을 제공하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ASD)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다.

강건한 차체와 첨단 지능형 기술로 구현한 안전성

제네시스 G70은 EQ900과 G80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

차체 측면부 핫스탬핑 적용, 구조용 접착제 (152m) 사용 확대, 한형구조 차체 설계, 서브 프레임 결합부분 강화, 엔진룸 스트럿바 탑재 등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 구조를 완성했다. 또한 동급 최대 수준인 9개의 에어백을 전 모델에 기본 탑재했다.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시 차량의 후드를 자동으

07
제네시스 G70은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돌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고, 필요 시에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한다.

로 상승시켜 보행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후드를 기본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첨단 주행지원 기술이 대거 포함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을 갖췄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 보행자뿐 아니라 종방향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인식하고 충돌 예상 시 긴급 제동을 도와준다.

럭셔리 세단 그 이상의 첨단 편의사양

제네시스 G70에는 EQ900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이 적용됐다.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은 운전자의 키, 앉은키, 몸무게 등 신체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의 운전자세를 분석해 자동으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최적의 운전자세에 맞게 변경해 편안하고 건강한 착좌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내비게이션은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 I(아이)의 음성인식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검색 편의성 및 정확도를 대폭 향상했다. 또한 고품격 음향 환경을 위해 언더시트 서브 우퍼를 기본화하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스피커 15개)을 탑재했다.



07

너의 이름이 궁금해 자동차 네이밍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를 내놓을 때 공들여 이름을 짓는다. 차명과 관련한 상표권 경쟁이 워낙 치열해 이제 웬만한 단어는 주인을 찾은 상태다. 따라서 빈틈을 노려 복수의 단어를 합성하기도 하고, 독점적 사용권 없는 지명을 쓰기도 한다.

글.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세상 모든 사물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어야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인식하며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조사는 고민을 거듭해 신차 이름을 짓는다. 독일 포르쉐의 스포츠카 911이 대표적이다. 196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이 차를 출품할 당시 원래 이름은 901이었다. 그러나 가운데 ‘0’이 들어

간 세 자리 숫자 차명을 쓸 권리를 갖고 있던 푸조가 반발했다. 따라서 포르쉐는 부라부라 901을 911로 바꿔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911은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명을 자동차 이름으로 삼기도 한다. 누구도 지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업종만 아니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현대차는 현재 SUV의 이름으로 지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아무 지명이나 쓰지는 않는다. 풍광이 수려하거나 부촌을 이룬 관광지 또는 휴양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투싼(Tucson)은 미국 애리조나 주 남동쪽의 멕시코 국경 인근 지명이다. 여행 관련 정보에 나오는 지명은 투손이다. 신타페(Santa Fe)는 미국 뉴멕시코 주



의 주도로 유명한 휴양지다. 현지 발음에 가까운 지명은 신타페이다. 코나(Kona)는 미국 하와이 빅 아일랜드 북서쪽의 휴양지다. 연간 생산량이 500여 톤에 불과한 고급 커피 이름이기도 하다. 과거 현대차 가운데도 지명을 쓴 경우가 꽤 있다. 베라크루즈(Veracruz)는 멕시코의 손꼽히는 부촌 중 하나고, 티뷰론(Tiburon)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고급 주택지다. 참고로 티뷰론은 스페인어로 상어라는 뜻이다. 현대차가 1978~1983년 유럽 포드와 라이선스를 맺어 생산한 그라나다(Granad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관광지다. 지명을 차 이름으로 쓰는 예는 현대차 이외에도 많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 세아트(Seat)는 스페인의 클러버들의 천국, 이비자(Ibiza) 섬을 소형차 이름으로 쓴다. 페라리가 최근 선보인 포르토피노(Portofino)는 지중해 인근에 자리한 이탈리아의 부촌이자 휴양지다. 최고급 슈트용 원단으로 유명한 에르메네길로 제나가 해마다 이곳에서 요트 경기를 연다. 차 이름으로 외국어를 쓰기도 한다. 예컨대 소나타(Sonata)는 이탈리아어로 ‘연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고도의 연주기술이 요구되는 4악장 형식의 악곡인 소나타에서 따온 것이다. 아반떼(Avante)는 ‘전방에’ 또는 ‘앞으로’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같은 스펠링과 뜻으로 쓰는 포르투갈어도 있는데, ‘아반치’라고 발음한다. 액센트(Accent)는 ‘강세’나 ‘억양’을 뜻하는 영어다. 기존 단어 두 개 이상을 짝 지은 신조어를 차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스타렉스(Starex)가 좋은 예다. 별이라는 뜻의 ‘스타(Star)’와 왕이라는 의미의 ‘렉스

(Rex)’를 붙여 ‘별 중의 왕’을 암시하는 이름이다. 친환경차 아이오닉(Ionic)은 전기적 힘을 결합하고 분리해 힘을 내는 ‘이온(ion)’과 ‘독창적’이라는 뜻의 ‘Unique’를 붙여 만든 합성어다. 수고를 덜기 위해 고유의 질서를 만들기도 한다.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현대차 가운데는 i30과 i40가 대표적이다. 숫자는 대개 차급을 상징한다. 숫자가 클수록 차체가 크고 비싸다. 30과 40이 뜬금없이 나온 숫자는 아니다. 현대차의 해외시장 전용 모델 가운데 i10과 i20가 있다. 서열에 따른 이름인 셈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Genesis)도 알파벳과 숫자를 차명으로 쓴다. 기함은 이전 세대 이름인 에쿠스(Equus)를 암시하는 EQ와 900을 붙여 쓴다. 참고로 에쿠스는 말 종류 중 하나다. 나머지 차종은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G와 숫자를 묶어서 쓴다. 현재 G80과 G70이 있다.



대형 버스 안전 지킴이로 나서다!

현대자동차가 10월부터 대형 버스인 ‘유니버스’에 일부 안전 사양을 선택해 구매하는 고객에게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S)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같은 프로모션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버스 안전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로, 안전한 도로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함이다.

대상 차량은 유니버스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구매 고객(출고 기준)을 대상으로 250만 원에 해당하는 전자제어 시스템(EBS) 및 차체자세 제어장치(VDC)를 옵션으로 선택할 시 차선이탈 경보장치(LDWS)가 포함된 자동긴급제동 시스템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 지원한다.

전자제어 시스템, 차체자세 제어장치 및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포함된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의 옵션 가격이 4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180만 원에 상당하는 안전 사양을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셈이다.

현대자동차는 안전 사양 추가 장착만으로도 버스 기사들의 안전 주행을 도와 대형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고객의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린카, ‘코나’ 무료 시승 실시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표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와 함께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나를 무료로 시승해볼 수 있는 ‘코나 무료 시승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주요 도시 그린카 시승존 50곳에서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시승존별 각 1대씩 총 50대의 코나 차량이 무료 시승차로 운영된다. 시승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린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www.greencar.co.kr)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시승을 원하는 지역과 시간을 선택해 최대 3시간 동안 자유롭게 코나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 5곳에 12월 16일까지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5시간 무료 시승 응모권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나 무료 시승은 개인당 1회 제공되며, 차량 대여비 외 주유비 및 하이패스 요금 등은 고객 본인 부담으로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고객들이 직접 시승을 통해 성능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길은 끝나도 삶은 계속되기에

함께 걸어온 이 여정, 어떠셨나요.

즐거움과 새로움 가득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과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길은 끝나도, 해는 저물어도

삶은 계속되기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더 크고 밝은 내일을 향한 당신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에 더 힘을 내어봅니다.

근본부터 독창적인 우리만의 방식으로. GENESIS G70



GENESIS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2 e-VGT 2WD (17*) : 복합 15.2km/ℓ(도심:13.5km/ℓ, 고속도로:17.9km/ℓ) | CO₂ 배출량:124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690kg | 자동8단(2등급) ▶ 2.2 e-VGT 2WD (18*) : 복합 14.5km/ℓ(도심:13.1km/ℓ, 고속도로:16.7km/ℓ) | CO₂ 배출량:130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10kg | 자동8단(2등급) ▶ 2.2 e-VGT AWD (17*) : 복합 13.6km/ℓ(도심:12.2km/ℓ, 고속도로:15.7km/ℓ) | CO₂ 배출량:140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65kg | 자동8단(3등급) ▶ 2.2 e-VGT AWD (18*) : 복합 13.5km/ℓ(도심:12.2km/ℓ, 고속도로:15.4km/ℓ) | CO₂ 배출량:141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65kg | 자동8단(3등급) ▶ 2.0 T-GDI 2WD (18*) : 복합 10.7km/ℓ(도심:9.4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₂ 배출량:156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590kg | 자동8단(4등급) ▶ 2.0 T-GDI 2WD (19*) : 복합 10.4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4km/ℓ) | CO₂ 배출량:161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30kg | 자동8단(4등급) ▶ 2.0 T-GDI AWD (18*) : 복합 10.0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₂ 배출량:168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65kg | 자동8단(4등급) ▶ 2.0 T-GDI AWD (19*) : 복합 9.2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₂ 배출량:177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95kg | 자동8단(4등급) ▶ 3.3 T-GDI 2WD (19*) : 복합 9.0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6km/ℓ) | CO₂ 배출량:188g/km | 배기량:3,342cc | 공차중량:1,705kg | 자동8단(5등급) ▶ 3.3 T-GDI AWD (19*) : 복합 8.6km/ℓ(도심:7.4km/ℓ, 고속도로:10.5km/ℓ) | CO₂ 배출량:197g/km | 배기량:3,342cc | 공차중량:1,775kg | 자동8단(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정/대리점의 커미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